

LG디스플레이 권영수 사장 유임

임원 13명 승진인사 단행 ... 전무 3명 승진에 상무 13명 선임

LG디스플레이는 전무 3명, 신규 상무 13명을 선임하는 정기 임원승진인사를 단행했다.

2010년 임기가 만료되는 권영수 사장은 유임됐다.

정철동 생산기술센터장, 구도희 패널센터장, 황용기 연구센터장 등 3명이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신임 정철동 전무는 LCD(Liquid Crystal Display) 생산기술 전문가로 2007년 10월부터 생산기술센터장을 맡아왔고, 구도희 전무는 2009년 10월부터 8개 패널공장의 생산성 향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황용기 전무는 2009년 6월부터 연구센터장으로 신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또 신정곤 광저우법인장 등 13명을 상무로 승진시키고, LG전자에서 상무 2명을 영입했다.

□승진 ▲전무 생산기술 센터장 정철동, 패널센터장 구도희, 연구센터장 황용기 ▲상무선임 BLU담당 이병철, 광저우법인장 신정곤, IT중국영업담당 김정환, Mobile 영업1담당 신정식, 구미장비기술담당 이중재, Dell 영업담당 오강열, 전략담당 이상엽, TV상품기획담당 김상열, 금융담당 이경래, R&D기획담당 채기성, Mobile소형 개발담당 김병구, Notebook개발2담당 최현철, 광기술담당 이재원 ▲상무전입(전 LG전자) 이정한, 전준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8>